

을미 새해에 띄우는 편지



유자호 시인·언론인

창호가 부엌에 밝아오고 있다. 조선종이 너머, 황량한 겨울의 눈동령 너머, 울울한 소나무의 가지 사이로 햇살의 전위 대가 당도했다.

새해 새날이다. 스물 네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는 나날의 아침이지만 올해 첫 아침은 예사롭지가 않다. 그것은 지난해 우리는 너무나 아팠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의 한 상처로 남을 세월호 사건으로 지금도 가위 놀러 잠이 깬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터져나오는 추문들, 갈등과 반목, 상처받은 가슴에 불을 끼얹은 '땅콩 회항' 사건. 국제 사회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 천민 자본주의의 창피한 민낯. 그러나 이렇게 참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아직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와 전쟁, 가난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행복이 최대의 가치관이 됐다. '행복하고 싶다'는 열망은 한국인들을 불철주야 뛰게 만든 에너지원이 됐다. 그 동인(動因)이 한국을 짧은 기간에

기적과도 같은 위치에 올려 세웠지만 물서러져지는 그 반면의 얼굴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것은 이기주의의 얼굴이다. 나만,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는 몰염치의 이기주의는 아닐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해마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오던 그 어렵던 농경시대. 구레 운조루의 주인은 배고픈 사람들이 뒤주의 쌀을 가져가도록 했다. 경주의 최 부자는 사방 십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함께 사는 것이 최대의 덕목이었다. 장년 이상의 세대들이 어렵던 과거를 따스한 추억으로 떠올리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지금과 가치관이 달랐었기 때문이다.

교육이 잘못됐다. 행복 추구의 교육은 수정되어야 한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과거의 수선 교육으로 회귀해야 한다. 제방의 구멍을 뚫음으로 막아 마음을 살렸다는 네델란드 소년의 이야기가 다시 교과서에 올라야 한다. 실용적인 글보다도 명문들을 가르쳐야 한다. '바른 생활'이, '도덕'이, '윤리'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필수 교과목으로 다시 등장해야 한다. 혼자 살려야만 다 죽고, 나를 버리면 모두가 산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해 뼈저리게 배웠다. 그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과거의 교육에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았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지구의 시간과 다른 우주의 시간은 달리 흘러간다. 다른 우주에서의 1시간이 지구의 7년이 되기도 한다. 블랙홀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비틀어진다. 5차원에서는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 천천만고 끝에 지구가 돌아온 주인공은 아직 젊는데 그 딸은 늙어 죽어가고 있다. 그가 우주 저편에 버려두고 온 여성 동료 찾아 떠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난다.

힘들었던 예전보다

더 각박해진 현실

불교 '마음챙김'이 해법

세계적인 우주 물리학자의 자문을 받으며 만든 영화라니까 이론은 대체로 맞을 것이다. 그런데 영화의 결론은 버리고 온 자신의 꽃을 찾아 떠나는 생백쥐 빠리의 '어린 왕자'와 흡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다른 우주에 가 있어도 마음이 함께 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울들어 아내와 두 딸을 죽인 한 사내의 뉴스가

우리를 경악케 했다. 우주의 저편에서도 가족과 통신하고, 버려진 동료를 찾아 다시 우주의 저편으로 떠나는 '인터스텔라' 마음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인터스텔라'에서 보여주는 우주의 시공간은 불교의 시공간과 너무나 닮았다. 우주의 공간은 무한대요, 저 세상에서 보는 이 세상의 시간은 찰나와도 같다. 참담한 과학이 동양문화와 사상의 정수인 불교의 우주관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서양인들이 불교적 명상의 세계에 심취해가고 있다. 그들은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에 의해 상처를 치유받고 안정을 회복한다. 한국 사찰의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외국인들은 '고향과도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 우리의 '템플스테이'가 하나의 문화 현상, 나아가서는 한국적 문화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21세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교는 그 치유책을 일러준다. 해답은 '마음챙김'에 있다는 것을.

새날이 밝았다. 두 딸을 버리고 미지의 시간들을 맞이해야 하겠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남북불교 교류가 통일 징검다리 되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재 남북 양측의 전단 살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북측 신년사를 긍정 평가한 것은 지난 연말 이후 살아나기 시작한 남북 대화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색 일로였던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로 돌아간 것은 통일 운동을 오랫동안 전개해 온 불교계에게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실제 불교계는 다양한 통일 운동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부터 추진 계획이 발표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불교 통일선언'이 대표적이다.

천태종도 올해 개성 영봉사 복원 10주년을 맞아 영봉사를 중심으로 관음사, 안화사 개성 지역 3개 사찰을 참배하는 순례코스 개발 등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북 불교 교류는 식량 및 생필품 지원과 같은 단순한 대북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드맵 안에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불교도 불교문화관과 의료지원·교육지원 사업 등 기반 지원 사업에도 눈을 돌려야 하며 불교의례 전수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북한 불교에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해에 시작된 남북 불교 교류가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

스리랑카에 '세계일화' 꽃씨 뿌린 진각종

진각종이 스리랑카 포교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것은 1999년 10월이다. 네곰보JGO 센터를 설립하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직업훈련원 등을 잇달아 개원했다. 벌써 15년이 흘렀다.

지금까지 많은 자금이 투입됐다. 네곰보 JGO센터도 이제 후원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립경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 그만큼 자생력을 기른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진각종의 각별한 후원과 보살핌이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이제 진각종이 단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 또다른 변신을 시도중이다. 구랍 12일 종조의 이름들만 '회당교육재단'을 스리랑카에 설립했다.

제 2의 교육불사에 진입한 셈이다. 재단 설립은 지속적인 교육 불사를 펼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재단이 설립되면 실무진이 바뀌더라도 설립정신에 의해 영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인 것 같다. 한국불교계에서 스리랑카에 교육재단 설립은 드문 일이라 많은 이들이 향후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회당교육재단 산하 기관으로는 JGO 유치원, JGO 직업훈련원, 회당 영어 초등학교, 회당 영어 중학교, 회당 유치원교사 연수원, 모노라가라 지역의 아동발달센터 등 총 6개가 있다.

진각종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 9월~10월 정도면 재단 등록 허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매년 3천만원 정도의 교육 기자재 후원 등 교육 포교에 활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재단 설립을 계기로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누가 알겠는가. 이 곳에서 미래의 스리랑카를 이끌 리더들이 쏟아져 나올지 말이다.

발언대

“불상 반환 문제로 불심까지 악화돼서야”

대마도 사찰 한국인 출입 금지



원영상 한일불교문화학회 학회장

2013년 서산 부석사 불상이 절도에 의해 국내에 들어온 이후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치달았다. 국내의 반일감정과 함께, 일본 내에서도 반한, 혐한 기류가 이어졌는데, 특히 부석사 불상이 있었던 대마도에서는 이러한 기류가 더욱 크게 일었다.

여기에 2014년 연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인 4명이 사찰에서 불상을 훔치다 적발된 것이다. 이후 대마도의 사찰에서 한국인을 금지하는 팻말까지 붙을 정도로 일본 불교계 일부에서도 반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것이 얽혀있는 곳이다. 특히 불교가 그러하다. 일본의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전해진 것이다. 이후 근현대 과정에서는 일본에서 불교는 세밀하게 발전해 나갔

다. 일제시대 제국주의 사상에 일본불교가 사상적 근간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근현대 불교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이후에는 불교계 매개체가 되어 양국 관계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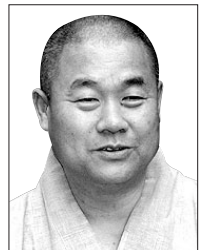
동일본 대지진때는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피해복구에 힘을 모으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한중일불교대회에서 일본 스님들이 DMZ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석사 불상 사건과, 이어지는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양국의 불심까지 악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불교는 양국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사상적 배경으로 관계유지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먼저 양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접근이 배제되어야 한다. 현재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석사 불상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다. 문화재는 결국 그 원 소장처에 있을 때 가장 그 가치가 살아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응적인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불자들이 지녀야할 경건한 신행 자세

부처님 성도·열반일을 맞아



송목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성도재일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 앉아 7일 동안 응맹정진 끝에 대각을 성취하신 날을 기리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음 자리를 발 견하기 위해 수행 정진하는 날이다.

불자들도 성도일 전 저녁부터 성도일 새벽까지 사찰이나 가정에서 부처님처럼 절야로 정진하는 것이 좋다.

보통 정진할 때는 부처님께 예경하는 의식을 갖고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등의 주요 수행법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해 수행하거나, 이 네 가지를 섞어가며 정진한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생애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면서 깨달음을 향한 큰 발원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의 출가동기와 수행과정에서 보여준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고픈, 중생들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며 제도하고자 하는 한량없는 원력과 자비심에 눈을 돌려야 한다. 부처님께서 마왕 파손의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단 하루만이라도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등 나를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해 보도록 하자.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 연기와 중도법이므로 연기법의 실천으로 나를 형성시키고 길러주고 보듬어주는 주변의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 보도록 하자. 어르신들께 감사의 전화라도 올린다면, 집안의 남편이나 부인, 또는 자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본다면 지 말이다.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 즉 무상정등정각을 증득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 말을 줄이면 불심이 된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가 부처임을 알고 둘째 타인도 부처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돌이 아닌 하나임을 아는 대비심을 일으켜서 자비와 나눔을 생활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절을 되새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Advertisement for 'Business' investment. Title: 불교사업에 투자 하실분. Content: 1. 전국 사찰 및 포교원 상대로 현재 진행중 소자본 1억에서 3억으로. 2. 고소득 보장 월 소득 투자금 1억에 1천만원 가능. 3. 매일 매일 소득보장. 투자금에 대한 담보 가능 돈을 벌고 싶으신분. 4. 직접 방문 요함. 5. 남골 봉안당 투자 하실분. 6. 경기 남부 지역. 7. 서울에서 1시간 거리. 8. 오천구 허가필. 9.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바람. 문의전화: 안성 백련사 031)673-7227

Advertisement for 'Durian Shop'. Title: 과일의 왕 두리안. Content: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Advertisement for 'Eung-ga Cheon-do' (영가천도의 중요성). Title: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Content: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사주명리(사주팔자)이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무복.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토대로 애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